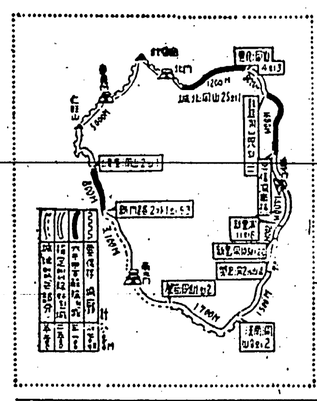
서울城郭 大手術

一部는 文化財解除도

補修



서울시는 이번시내 一원 에걸쳐 무너질 염려가있 거나 문화재도시의 품상실한 一부성곽을 수도는 「문화재로부터 해 제하기 모하고 特(特別)·獨立門등 문화재의 환경미 화공사도정하여야하였다

서울시내의 성곽은 五 백六六년이란 긴세월을지 내오는동안 대부분 남았 을뿐아니라 건축물및 개 축(改築)등으로 성곽一 부는 이미 문화재적가치 를 상실하였으므로 동괴 우려가있는 주대지대의성 곽은 지난4월10일자로문 화재 보존위원회에 제거하도록 시공할것이며 산악지대성곽으로서 문화 재로 보존될부분은 교육 국장관으로 이를 보수할 계획을세우고있다

당초의 서울의 성곽의 길이는 一만八천「미터」, 이중六천七백「미터」에달 하는 성곽이 문화재로서 보존되고 이미 해제된주 택지의성곽은五천二백「미 터」, 이번해제한성곽은六 천一백「미터」이다

국장관으로 보존될부분은 제외하고 보존할 성곽의 길이는 一만八천「미터」, 이중六천七백「미터」에달 하는 성곽이 문화재로서 보존될부분은 교육 국장관으로 이를 보수할 계획을세우고있다

당초의 서울의 성곽의 길이는 一만八천「미터」, 이중六천七백「미터」에달 하는 성곽이 문화재로서 보존될부분은 교육 국장관으로 이를 보수할 계획을세우고있다



서울國際音樂祭典開幕

樂壇初有의 큰『잔치』

서울국제음악제전이18일 하오7시45분 시민회관에서 화려한 첫막을 올렸다

세계적인 실내악단인 「비르투오시·디·로마노」합주단은 이날 초저녁부터 모여든 수많은 음악애호가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속에 「테나모·파사노」셔의지휘로 二시간여에 걸친첫 공연을가졌다

「안모니오·비발디」의 협주곡 B장조를 첫곡목으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에서 「비르투오시·디·로마노」합주단은 「모·마의지장곡」 등 명인적인 연주를보여 二천五백여 청중을 시종황홀경으로 이끌었다

이날연주된 곡목은 다음과같다

▲안모니오·비발디」 협주곡 BCE장조 ▲「코렐리」 합주곡D장조 ▲「치마로사」 협주곡C장조 ▲「로시니」 「소나타」E6장조

外人들明朗旅行하도록

수치스런골보이지말자

市警 觀光씨즌맞아市民協調要望

18일상오 鄭시경국장은 『앞으로 각종국제행사를 맞이하여 많은외국인이우리나라를 찾게됨에따라우리나라에서 좋은인상을받고 명랑한 여행을 할수있도록 시민들은 친절과 협조하여주기바란다』는 요지의 담화를발표, 다음과같은사항에 협조하여 주기를당부하였다

①범죄예방은 경찰에만 맡겨 방관하지말고 서로 협조, 외국인이피해를 입지않도록할것

②각종사회질서를 유지하여 외국인에게 수치스런꼴을 보이지말것

③상도의를 앙양하여 외국인에게 부당한거래를하지말것

④노상에서대소변을보지나 외국사람의뒤를 따라다니며 아이들이 귀찮게하는일이 없도록할것

⑤시로 주위환경을 깨끗이하고 화초등을가꾸어 미화에 힘쓸것

⑥「호텔」·여관·음식점등 각종접객업소에있어서 장내의설비를 현대화하고 종업원에대한 친절한 교양을시킬것

⑦시내의 문화재및관광시설을 최대한으로 보호할것

落島에各種선물

海軍本部와黑山面鎭里結緣

【黑山島에서木莊局偶源特派員18日發】18일정오이곳 黑山면鎭里一구에서는 해군본부와 이마을과의 자매결연식이 성대히거행되었다

이날 李참모총장을 대신하여 해군본부군무장병들의 성금五십여만환으로 마련한 돼지·「라디오」·밀가루·학용품·의약품등푸짐하게 준비되어있는 선물을 마을에선사하였으며 낙도의 외로움에젖어있는 섬사람들은해군군악대의연주와 영화관람및 군의관들에의한 무료진료등으로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를 즐겼다

就業申告도없어

"

‖聯合勞組、서울市에‖

清掃人夫25名不當解雇抗議

서울특별시산하 청소종업원과 수도총업원및 직영채석공장의종업원 三천명으로 구성된「전국연합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8일하오 서울시에대하여 노동근로자의 경당한 권익을 짓밟고있다고 주장하였다

三年敎猶言渡

容門山祈禱院

放火事件被告

【大邱發】18일하오大邱지법文祥부장판사주심으로容門山기도원 방화사건관계 공판이열렸는데 被告(三二·여)는 『예로인』 말을 듣고 『헤로인』 말을 『추럼』이라고 다방에서 마약밀매매 거상임명장 『추럼』을받아두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헤로인』이라고 주장하였다

士兵四名重傷

추럭高壓電柱받아

【安養發】18일오전10시반 安養安養읍安養리五三八일주 도상에서 당직주둔五〇五 병기단三〇六대대소속五〇 六병장 金昌洙(二二)가 운전하던 『추럭』이 고압선전주를 들이받으면서 車体가 산산조각으로부서지는통에 동승하였던 육군군법회의 재판장 金 文 燮 준장과 운전병 金昌洙(二二)가 중상을 입어 육군병원에 이송되었다

麻藥密賣三名檢擧

背後를追窮中

서울시마약계는 永登浦 구청앞 「로타리」 다방에서 마약밀매매 거상임명장 『추럼』을받아두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헤로인』 말을 『추럼』이라고